

한국오라클은 지난 1월 20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오라클 DBaaS(Database as a Service) 전략 소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장성우 한국오라클 DB사업부 본부장은 “기존 오라클이 제공했던 소프트웨어(SW)를 라이선스 구매뿐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DB도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오라클, DBaaS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을 적극 공략

## 한국오라클, 클라우드 DB 사업 본격화

### 라이선스 구매와 임대 방식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맞춤형 솔루션 제공

한국오라클(www.oracle.com/kr)은 DBaaS(Database as a Service)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라클 DBaaS는 기존 오라클 DBMS와 동일한 품질의 솔루션으로, 일반적인 DBaaS 서비스가 단순 DB 기능만을 제공하는 반면 오라클 DBaaS는 상용 레거시 DB 기능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DB 인스턴스에 대한 완전한 제어와 모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기존 오라클 DBMS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라클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힘을 쏟아 DB를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형태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DBaaS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A 회사에는 수십개의 계열사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할 때, 각 계열사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 데이터 센터는 각 계열사에 있는 정보를 모아준다.

오라클은 A 회사에 클라우드 관리 기술과 구축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A 회사의 데이터 센터는 계열사에게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A 회사 내부의 클라우드 운영과 거래는 데이터 센터가 총괄하고 오라클은 초기 구축 단계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 회사는 모든 계열사에 동일한 DBaaS 등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면서, 데이터 인프라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DB 인프라 자원을 빌려준다. DB를 설치형으로 이용하면 고객 환경에 따라 설정을 바꿔줘야 하고 백업, 모니터링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은 이러한 수고를 덜어준다. 한국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업부 장성우 전무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는 서로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자유롭게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라클은 DB가 핵심 제품인 만큼 DBaaS도 경쟁사보다 안정성이 높고 서비스 종류가 더 다양하다”라고 자신했다.

장 전무는 “현재 기업들은 IT상황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소비의 주체가 되는 20~30대를 대응하기 위해 각 기업의 IT부서는 기존 방법을 버리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IT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전무는 기존 기업들의 SW 도입 과정이 ‘발주·구축·안정’의 3단계로 진행됐으나,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서비스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업은 데이터베이스를 프라이빗, 퍼블릭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전함으로써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우수한 성능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해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오라클은 오라클 DBaaS 솔루션

루션의 차별화된 안정성과 보안성 및 편리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자사의 클라우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오라클(www.oracle.com/kr)은 DBaaS(Database as a Service)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BaaS는 데이터베이스(DB)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의 DBaaS는 물론 그룹 SI 기업에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2015. 02. 20  
데이터넷

한국오라클,  
DBaaS 서비스 본격화

오라클이 주요 기업용 서비스에 이어 데이터베이스(DB)도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오라클은 올해 국내 클라우드 부문이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는 판단 아래 '서비스형 DB(DBaaS Database



2015. 02. 20  
디지털타임스

한국오라클,  
“DB도 클라우드로 제공”

한국오라클은 20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오라클 DBaaS(Database as a Service) 전략 소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자사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2015. 02. 20  
지디넷코리아

한국오라클,  
DB사업도 클라우드 대공세

도 50%를 클라우드에 분할함으로써 업무효율도 향상시켜 기대 있는 DB 시스템을 장려할 수 있다. 새로운 기업문화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안 관리자의 눈 밖에 있는 무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DB를 하나의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어 관리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된다.

이 때문에 DBaaS에는 거의 모든 클라우드 기업들이 뛰어들었다.

클라우드 업계의 대표주자 아마존웹서비스(AWS)는 RDS라는 상품을 통해 DBaaS를 서비스하고 있다. RDS는 MySQL과 관계형DBMS를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MS SQL, 오라클, 포스트그린드, 및 오픈소스 DBMS인 무인클라우드, MS SQL, 서버를 사용하며 MS SQL에서 이용할 수 있다. AWS는 현재 미국 '호놀룰루'라는 자체 DBaaS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외에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SQL'라는 서비스를 제시했으며, MS는 윈도우 에지를 통해 자사의 SQL 서버를 DBaaS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DBaaS 서비스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오라클이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서는 출발주자로 여겨지만, DBaaS 시장에서는 한 세대가 뒤떨어진다. 국내에서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경쟁사를 압도해 왔다.

이런 오라클은 지난 해 겨울 오픈월드 2015에서 클라우드 DB 서비스인 DBaaS를



2015. 02. 21  
디지털데일리

클라우드 DB,  
오라클 독점 국내 시장서도 뜰까